

大 會 辭



오늘 산업자원부의 국정감사 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님! 그리고, 한국전기공사협회 주창현 회장님, 대한전기협회 박천진 부회장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김봉균 회장님, 전기신문사 최길순 사장님, 김선집 前 협회 회장님, 이경식 前 협회 부회장 및 전력산업현장에서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기인 여러분!

오늘 내외 귀빈을 모시고 제3회 『전기인의 날』을 맞아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님과 이윤성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님 및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하셔서 치사와 격려사를 해주시고 여러 전기단체장님을 모셔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뜻하지 않은 북한 핵실험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이를 연기됨에 따라 오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로 인

해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데 대해서 회원 및 전기인 여러분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외빈들께서 꼭 참석하려고 했었지만, 국정감사에 의무적으로 배석하는 관계로 이번 행사에 참석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설비의 규모는 6,400만kW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기술을 보유하는 등 명실상부한 전력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시설물의 설치공사와 유지관리 기술도 뛰어난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율도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80만 전기인들이 타 업종보다 비교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기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분야 등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한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애하는 전국의 80만 전기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진흥대회는 지난 1년 동안 전력기술발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공로가 큰 전기인에 대한 표창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전기인』을 발굴하는 등 전기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축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력기술세미나를 통하여 변화무쌍한 국제 전력기술을 습득하고 전기인 상호간에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전력기술 노하우를 주고받는 정보교류의 자리인 만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기인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을 이끌었던 원동력의 주체인 전기인을 비롯한 산업역군들의 사회적 지위는 그리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학에서의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우리나라 전력산업분야에서도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양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세계경제가 무한경쟁시대로 돌입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와 폐지 내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전기인의 입지도 점점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협회는 전기인 및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그 동안 여러 일들을 해왔으며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전기인의 기술향상과 인력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학의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및 성적우수자의 전기공학과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설계·감리전문가 양성교육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간 15,000여명에 달하는 전기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회원 자녀중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인의 후진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기인의 사회적 대우 개선과 위상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의 규제폐지정책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 의무고용제도를 현행 존치시켜 왔으며, 금번 전력기술 관리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연간 감리용역시장의 규모를 100%수준 신장 시켰고, 그에 따른 전기인의 일자리 창출 등 전기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위상강화와 힘 있는 협회를 구현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정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회원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국제 전시회 등 큰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대외에 알림으로써 협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회원 및 전기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협회회관을 마련하였고, 지난 10월 20일에는 사당역 주변에 위치한 새 회관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전국의 80만 전기인 여러분!

앞으로 우리 협회는, 전력산업현장기술에 부합하는 전기인의 양성은 물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인력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며, 아울러 전기설계·시공·감리 및 안전관리 등 전력기술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전기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전기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기인 여러분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전력산업 역군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자기계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력기술진흥대회가 우리나라 전력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1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이 희 평**

축하 메시지



전국의 80만 전력기술인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원 여러분!

제3회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력산업은 6,400만kW 용량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기술을 보유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명실상부한 전력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은 물론, 전기설계·시공·감리·안전관리 등 전력산업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80만 전력기술인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력기술인 여러분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어주시고 철저한 전기설비의 시공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력기술진흥대회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열어주고 80만 전력기술인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전력기술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1일
산업자원부 장관 **정 세 균**

산업자원부 정세균 장관님께서 진흥대회에 참석하시어 치사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이를 연기됨에 따라 오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로 직접 참석을 하지 못 하시고 영상 메시지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激 勵 辭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이윤성입니다.

오늘 「제3회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 행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지금처럼 향상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전기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전기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수상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매년 전력기술진흥대회를 개최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전기인에게 이와 같이 포상을 실시하는 것은 전력기술개발을 더욱 촉진시켜 개발된 전력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대회는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인 여러분!

지금 세계 산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전력기술분야도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FTA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세계시장의 개방화 추세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빈약하여 국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자원의 97%이상을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원유가격의 폭등, 원화절상 등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유국들은 원유 의존도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체 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기자동차가 생산·보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저 거대한 중국이 맹렬하게 우리나라를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품수출이 금년 7월 미국을 추월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력산업분야인데 이 분야만은 아직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년 두 자리 숫자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에너지자원 수출국이었던 중국이 에너지 자원 수입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자원 중 거의 전량을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원자재수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변화로 4계절이 뚜렷하던 우리나라가 최근에 와서 지구의 온난화로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구의 환경보존을 위해서 교도의정서 발효 이후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전기는 그 효용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인 여러분!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수출강국이 된 것도,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산업이 선도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지금처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것도, 우리 국민들이 최신의 정보와 문화를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여기 계신 전기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희평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대회가 우리나라 전력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전기인 여러분의 기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이 윤 성 의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이윤성 위원장님께서 진흥대회에 참석하시어 격려사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었으나, 오늘 산업자원부의 국정감사 실시로 인해 직접 참석을 하지 못 하시고 지면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祝 辭



존경하는 전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3번째를 맞이하는 「전력기술진흥대회 및 전기인의 날」 행사에 80만 전기인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회를 준비하느라 많은 애를 써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희평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인 여러분!

무엇보다 여기계신 전기인 여러분들이 어려운 근무조건에서도 묵묵하게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근 반세기 전의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불과 60여불, 수출규모도 1억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경제는 수출액이 2,540억불, 1인당 GNP규모는 14,000불 총 GNP규모가 6,800억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성과는 국가산업의 원동력인 전력산업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예로, 반도체를 비롯한 IT, BT, NT와 같은 정밀을 요하는 산업들은 품질 높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상품과 기술개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전기인 여러분!

무엇보다도 경쟁국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부러워하는 것은 바로 뛰어난 전력기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에서 대한민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공계 기피현상, 전력에 대한 상대적인 관심부족으로 전기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감과 자부심도 줄지만 그에 맞는 위상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전기인 여러분들을 항상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묵묵히 자신의 소임에 전념할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기계신 모든 전기인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넘쳐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노영민 의원**